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9, 마가복음 12:13-27,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과의 갈등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마가복음 12:13-37,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갈등입니다.

좋은 아침 또는 좋은 오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가복음 12장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예언을 따라왔듯이, 그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다시피, 이 질문, 아시다시피, 당신은 항상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날들을 통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성전에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주장했듯이, 성전을 저주하고 그 목적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부와 교류했습니다. 지도부는 그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산헤드린을 이 모든 것의 배경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면서 보게 될 것은 이 그룹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이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관리를 거부하고 포도원 주인을 거부한 사악한 소작인들과 연관시켰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구약성경의 이미지에서 주인은 신이었고, 심지어 태양을 거부하고 태양을 죽였는데, 예수께서는 태양을 자신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의 배경이에요. 저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다루는 이 7가지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특정 논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후에 사두개인과 서기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전개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각각은 교사로 시작하고, 각각은 권위의 문제를 다룹니다 .

그럼,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해 봅시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 중 몇 사람을 보내어 그의 말로 그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고 누구의 의견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외모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인가 아닌가? 우리가 그들에게 내야 하는가, 아니면 내서는 안 되는가? 그러나 그는 그들의 위선을 알고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시험하는가? 나에게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내가 보게 하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모습과 비문인가?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당 사이의 예상치 못한 동맹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서로 반대했을 두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헤로데당은 헤로데 왕조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그룹이었는데, 헤로데 왕조는 헤롯 대왕으로 시작된 왕조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탄생 이야기에서 알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그의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연합했고 확실히 로마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종종 큰 농업, 건축적 발전, 도시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즐겼던 헬레니즘적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반대했던 모든 것들.

물론,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연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그를 죽이려고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여전히 여기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 전체에 걸쳐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많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욕이나 거짓이나 아침으로 실제로 사실인 말을 하는 많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당신이 진실하고 누구의 의견도 신경 쓰지 않으며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당신이 정직하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참된 교사이며 하나님의 것들을 원한다는 아침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시고, 물론 위선은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모욕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 배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박수를 받기 위해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아닌 사람인 척하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예수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답을 원하지만, 그는 그들의 진짜 의도가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여했고, 예수는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데나리우스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이 맥락에서 흔하지 않은 질문이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유대에서는 돈이 로마로 직접 갔지만 갈릴리에서는 헤롯 안티파스를 통해 로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물론 문제의 세금은 투표세입니다.

데나리우스는 로마의 은화였으며,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흉상이 한 면에 있었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적힌 비문을 의미하는 약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티베리우스에게 바쳐진 것은 반신적인 특성, 즉 신의 아들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한 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 리비아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녀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전,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우스가 지적했듯이, 카이사르 자신도 이런 제국적 숭배와 반신적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겉보기에 훌륭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불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타협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자신을 신성모독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인물에게 돈의 고통을 확인하거나, 거부하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여,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혁명가들의 리그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동전을 요청하셨고, 저는 항상 그가 동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웃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동전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동전을 제공하기 위해 동전 하나가 필요했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는 데 유용하고 필요한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이미지가 있는지 묻고, 그에 대한 대답은 카이사르의 것이고,

그의 모습과 비문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은 카이사르에게 카이사르의 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정부의 권리를 인정하시고, 정부와 통화 시스템이 존재하며, 권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진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들은 그것을 한층 더 발전시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것 위에 두는데, 여기에는 인간 정부도 포함되며, 궁극적인 통치,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조차도 인간 정부도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동전에 카이사르의 모습이 새겨져 있지만, 인간 으로서의 카이사르는 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 이 인간, 그 모습의 실체가 여기 있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신을 위해 행해진다는 미묘한 암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봉사조차도 신에 대한 봉사이고, 신은 정부가 존재하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는 카이사르에 대한 혁명과 세금 면제를 선언하는 것을 피하는 대답에서 방법을 찾았지만,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와 그에게 행해지는 궁극적인 봉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그에게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주겠다는 그의 주장에 거의 항의할 수 없었고, 헤로디안당원들은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을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겠다는 그의 주장에 거의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불화한 바리새인과 헤롯당이라는 두 당사자는 예수님의 답변에서 그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다음 그룹이

나오는데,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시험을 보았고, 이제 18절에서 27절까지 사두개인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걸 읽어줄게,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볼게.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여 이르되,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였으니,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과부를 데리고 형을 위하여 자손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나이다.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내를 취했고, 그가 죽었을 때 자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그녀를 취했고,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일곱은 자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틀렸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때, 그들은 장가가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관하여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에 관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당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말했듯이 사두개인들은 집단적으로 이를 부인했고, 그들은 부활이 구약에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사야 26

:19에 예고되어 있고, 에스겔 7장, 다니엘 12장, 시편 73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큰 진술이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당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반대편에 섰고, 그들의 기원은 아마도 하스모네 왕조의 부상, 마카비 반란의 성공, 하스모네 통치, 그리고 그 동안 일어난 일종의 책략과 함께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이 사두개인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집단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로 이 집단이 성전이 무너진 후 계속 이어지지 않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권력은 주로 예루살렘의 권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오직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이제, 제가 방금 부활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시편에서 다른 책들보다 다소 더 명확하게 암시되고, 예고됩니다. 그 중 어느 것도 모세의 다섯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오직 오경만을 성경적 권위로 인정했고, 그래서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사제 지도부, 상류 계층과 연관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과 많은 상호 작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로 위치해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거룩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시골에 흩어져 있었지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지금까지 그들과 그렇게 많은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선지자들을 성경적이라고 부인했기 때문에 메시아적 주장과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다가올 메시아, 미래의 메시아 등에 대한 생각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같은 정치적 기관과의 제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의 영향력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편이며 예수를 불신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 이 질문, 그들이 제시한 이 가정적 상황은 레버렛 결혼, 또는 매형 결혼의 관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오경에서 나온 아이디어, 즉 형제가 사망하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의 형제가 형의 과부와 결혼할 수 있고, 형의 과부와 결혼하여 그 아이들을 상속인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이해하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레버렛 결혼의 이 관습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적은 누군가가 한 명 이상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고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죽었을 때, 지금은 취약하지만, 아시다시피, 잠재적으로 재산, 상속인, 자녀, 축적된 부가 가족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녀가 보호받을 수 있고, 그녀의 아들들이 삼촌의 상속자가 되고, 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었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버릿 결혼을 가정하고, 한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 일곱 형제와 결혼하고, 그들 중 누구와도 아이가 없다면, 그것은 가족 혈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남성도 우선권을 가질 수 없게 하고, 부활 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부조리를 보여주고 싶어하는데, 그들의 가정은 부활의 삶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삶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들이 가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부활의 삶에 대해 가르칠 때, 어떤 의미에서 부활의 삶이 이해되는 것과 매우 유사했을 때, 그저 일어나고 있는 일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보게 되고, 저는 그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논쟁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논쟁하지 않고 실제로 레버릿 결혼에서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누가 명령에 따라 첫 번째 주요 남편으로 간주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그는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이제, 그가 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할 때마다 그는 보통 "읽지 않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난이지만, 여기서 그는 부활을 다루는 성경 구절을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훌륭한 방식으로,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책에서 성경에 대한 논의를 계속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가서 부활에 대해 말하는 대신, 사두개인들이 무효화하려고 하는 부활을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그는 오경 자체의 핵심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책에서 떨기나무에 대한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저는 그것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오경만을 사용하는 데에 경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속 지키고 계시지만, 언약은 죽은 자와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살아 있는 자들과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의하세요. 알다시피, 당신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경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논쟁도, 오경에서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그들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부활의 삶이 단순히 현재 존재의 연속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은 다른 삶의 질, 다른 삶의 본질이며, 결혼에 대한 질문은 제기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논쟁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로데당에 대해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는 바리새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고, 헤로데당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두개인들과 함께, 그는 그들이 성경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본문에서 주장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전에서 그의 권위는, 아시다시피,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8절에서 34절에서 이야기할 서기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반응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8절에서 34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헤드린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시험하러 왔고, 사두개인들은 시험하러 왔지만, 이 특정 서기관의 그림에서 서기관들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것은 사실 이 서기관과 예수 사이의 매우 우호적인 대화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 특정 서기관이 전체 그룹을 대표한다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12장 후반에 서기관에 대한 가혹한 진술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그룹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온 그룹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룹이었고, 이것은 특정 서기관, 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28~3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서로 논쟁하는 것을 듣고, 그가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대답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목격하고, 그에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이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이 질문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계명이 의무인지, 어느 계명이 다른 계명보다 우선하는지, 다른 계명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무거운 계명인지에 대한 생각과 더 비슷합니다. 이 무겁고 가벼운 생각은 어느 계명 없이도 되고 어느 계명만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토라의 나머지, 율법의 나머지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어느 계명이 해석적 열쇠인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계명은 무엇이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종류의 질문은 드문 질문이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논의에서 앞서 언급한 힐렐은 예수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랍비 중 한 명을 대표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요약하기 위해 이 질문을 했고,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의 부정적인 버전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이웃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토라 전체이고, 다른 모든 것은 해석입니다. 또 다른 랍비인 랍비 아키바는 서기 135년에 토라의 본질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9장 8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드문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하십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즉, 다른 모든 것을 해석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신명기 6:4과 5로 끝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마로 알려진 것으로 시작하는데, 들으라는 개념이며, 그것이 들으라 , 이스라엘아로 시작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마도 아침저녁으로 인용되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핵심 고백 중 하나였을 세마와 관련하여, 신명기 본문을 보면 실제로는 마음, 혼, 힘이라는 세 가지 응답이 있는 반면, 예수님은 마음, 혼, 정신, 힘이라는 네 가지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 많은 잉크가 쏟아졌고, 어떤 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것이 지금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와 시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포함시키고 싶어합니다. 저는 또한 이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몰랐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때때로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둘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온전한 사람은 마음, 혼, 힘으로 사로잡힐 수 있었고, 마음 속에는 일종의 정신적 사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그런 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1세기에 접어들었을 때, 온전한 사람을 구성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종류의 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함께, 아시다시피, 여기서, 마음, 혼, 정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여기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세마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전한 사람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온 인격으로, 모든 측면으로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를 주십니다. 당신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기 구절을 거기에 더합니다. 이제, 세마에 레위기를 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결과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은, 요약하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체 가르침이 세마에서 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 엘리야는 이에 기뻐합니다.

서기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 말씀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과 온 이해와 온 힘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서기관, 서기관이 답변에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텍스트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의 답변에는 신명기 4:35, 6:4, 레위기 19:18, 사무엘상 5:22, 이사야 45:21, 호세아 6:6의 메아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순종, 헌신, 이웃 사랑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성전의 맥락에서 일어난 일인데, 성전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장소가 아니라 위대한 희생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고,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을 때, 그러면 서기관은 무엇을 올바르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다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셨을 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그의 인격으로 다가왔다고 선포하셨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서기관의 이 진술은, 만약 서기관이 이런 생각을, 어쩌면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런 다음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결합과 이해, 만약 당신이 구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됨으로써, 예수께서 자신과 연결하셨고, 그는 또한 그 두 계명으로 요약된 구약 전체가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 즉 예수의 도래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혹적이고 매우 우호적인 진술과 교환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서기관이 아니었고, 모든 바리새인이 그를 반대하지 않았고, 모든 서기관이 그를 반대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예수에게서 무언가를 찾고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35절에서 37절까지 계속 진행하고 싶은데, 아마 이번에는 여기까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논란 중 여섯 번째입니다.

물론 여기서 서기관들은 낮은 위치에 놓여 있고, 구절을 읽고, 그 구절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자신과 성령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편에 앉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두리라. 다윗 자신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그의 아들이겠느냐? 그리고 큰 무리가 기쁘게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계시고, 가르치시고, 다윗의 조상과 메시아적 기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메시아적 기대에 대해 항상 이야기해 왔고,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6절까지에서 비롯되는데, 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계에서 메시아적 왕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이 아이디어는 선지자들에게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세요, 그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고, 삽입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서기관들이 어떻게 논쟁을 벌이는가? 그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 자신이 이 인물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아시다시피 다윗의 혈통에 속해 있어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다윗 왕이 그의 자손 중 한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10 :1을 인용하는데, 이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다른 어떤 구절보다 더 많이 인용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와 그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입증하는 데 꾸준히 사용됩니다.

이제, 예수는 이미 암묵적으로 눈먼 바디매오로부터 다윗의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눈먼 바디매오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 그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일종의 완전한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아들인가요?
흥미로운 건, 예수님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그저 말씀하셨고, 문제를 제기하셨을
뿐이에요. 물론,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례에서 변형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여기서 주신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즐겁습니다.

다시 모일 때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마가복음 12:13-37,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의 갈등입니다